



브룩스 가족 패유 바라는 양현종 2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모자에 동료 브룩스의 이름을 새기고 출전하고 있다. /뉴스

KIA 브룩스 “응원과 기도 감사”

가족 교통사고로 급히 출국...구단과 팬들에 감사 전해

가족의 교통사고로 인해 급히 미국으로 떠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30)와 그의 아내가 응원과 기도로 힘을 준 KIA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브룩스의 아내 휘트니와 아들 웨스턴, 딸 먼로가 탄 차량은 신호 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비보를 접한 브룩스는 22일 오후 급히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에 도착해 가족들과 만난 브룩스는 가족들의 상태를 전하면서 응원을 보내준 KIA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브룩스는 트위터를 통해 “KIA 구단과 두 팔 벌려 나와 가족들을 환영해 준 한국의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받은 모든 사랑에 감사드린다”면서 “가족 모두가 살아있음에 신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브룩스는 KIA 구단이 브룩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제작한 영상을 함께 올렸다. 브룩스의 아내 휘트니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KIA와 팬들이 보내준 응원에 정말 놀랐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휘트니는 “웨스턴의 상태를 계속 전하겠다.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류현진·김광현 동반 출격 ‘이번에는 꼭’

25일 나란히 정규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 세 차례 동반 등판했지만 승리 없어 ‘아쉬움’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나란히 정규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에 나선다.

23일(한국시간) 현지 기자들에 따르면 류현진 25일 오전 7시 37분 미국 뉴욕주 버펄로 살렌필드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 15분에는 김광현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 선발로 출격한다.

류현진과 김광현 모두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다.

류현진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포커스를 맞출 전망이다.

22일까지 28승26패를 거둔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전체 8순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이 유력하다.

가을야구 티켓을 사실상 손에 넣은 만큼 포커스도 ‘정규시즌 이후’로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난 2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고, 나흘 휴식 뒤 25일 마운드에 오르는 류현진은 30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왼쪽),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발 마운드도 지킴 전망이다. ‘중요한 경기’인 30일 등판을 위해 25일 양키스전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투구 수도 적게 가져갈 수 있다. 상대 선발 투수는 좌완 몽고메리다. 올 시즌 2승2패 평균자책점 5.12를 기록 중이다.

류현진은 양키스를 상대로 통산 3차례 등판해 승리없이 2패 평균자책점 8.80에 그치며 약세를 보여왔다.

김광현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2일까지 26승24패로 내셔널리그 전체 6위에 올라있는 세인트루이스는 내셔널리그 전체 순위에서 7위 신시내티 레즈와 8위 필라델피아 필리스, 9위 밀워키 브루어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매 경기가 중요하다. 김광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올해 2승무패 평균자책점 1.59를 기록 중인 김광현은 30이닝 이상 던진 내셔널리그 투수 중 평균자책점 1위에 올라있다. 순항하며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로도 평가받던 그는 지난 20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 5⅓이닝 4실점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최종전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셔널리그 신인왕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편, 류현진과 김광현은 한국인 투수의 동반 승리에도 도전한다. 이들은 올해 세 차례 선발로 동반 등판했지만, 한 번도 함께 승리를 따낸 적이 없다.

한국인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날 승리를 거둔 건 15년 전이 마지막이다.

2005년 8월2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박찬호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5이닝 5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승리를 따냈다.

뉴욕 메츠 소속이던 서재응은 같은 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7이닝 7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뉴스

손흥민 휴식...코로나 여파 토트넘 카라바오컵 취소

상대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토트넘 홋스퍼의 카라바오컵(리그컵)이 취소되면서 손흥민이 휴식을 얻었다.

토트넘은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23일 예정돼 있던 레이턴 오리엔트(4부리그)와의 리그컵은 취소됐다. 자세한 일정을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스포츠스포츠 등 현지 매체들도 경기 3시간여 전 속보로 토트넘과 레이턴의 2020~2021 시즌 리그컵 3라운드(32강) 취소 소식을 전했다.

레이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게 원인이었다. 영국 테일리메일에 따르면 레이턴에서 1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턴의 홈구장과 훈련장은 폐쇄됐고, 경기 일정 연기 혹은 토트넘이 불수승으로 4라운드(16강)에 오를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강진군청 사이클팀, 양양 전국사이클대회 종합 ‘준우승’

정점식 코치 최우수 지도자상 수상 등



강진군청 사이클팀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양양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열린 2020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대회 첫날 열린 단체 출발경기(신동인, 황범연, 배승빈, 안희상)에서 값진 1위를 거둔 후 울리움 포인트 1위, 울리움 템포레이스 1위, 울리움 제의 2위, 울리움 스크래치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동인 선수가 울리움 종합 1위를 차지한 것과 더불어 개인 출발 4km 경기에서 황범연 선수가 2위, 메디슨(40km)에서 안희상, 신동인 선수가 3위, 템포레이스(10km)에서 배승빈 선수가 3위, 스크래치(10km) 경기에서 김태형 선수가 3위를 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강진군청 정점식 코치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다른 실업팀의 선수들이 대부분 3

년차 이상이고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처음 일부로 참가한 선수가 주를 이루는 강진군청 사이클팀이 종합 2위에 오른 것은 감독 및 코치와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창단 이후 18번째 강진군청 사이클팀을 지휘하고 있는 박경춘 감독은 “대회를 위해 강진과 나주를 오가며 선수들의 얼굴이 새까맣지도록 연습했다”며 “성실히 연습에 임하고 좋은 결과까지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있을 각종대회에서도 열심히 연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군수는 “선수들이 일궈낸 값진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부단한 연습과 노력의 탄방울이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있도록 강진군 또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가격 이상의 가치,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할연

담양점 OPEN

프로방스 담양점 OPEN

OPEN 10:00 ~ CLOSE 20:00

모든 음식 포장·배달 가능 | 061)382-3636 | 대형주차장 앞에 있습니다. 레이나 골프장 입구 옆